

집배노동자가 안전하게 배송하는 현장이 되길

유청희 상임활동가

집배노동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과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 중 하나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다. 2008년부터 2017년, 10년 동안 집배원 166명이 사망했다. 2017년부터 14개월간 우정사업본부, 한국노총 우정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당시) 집배노조는 전문가들과 함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꾸리고 심각한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강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2018년 정부에 권고했다. 이후 인력 충원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겸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게 만든다

우체국 현장에 가보니, 우편물을 기계로 분류하는 순로구분기가 돌아가고 있어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설비가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퇴근 시간에 맞춰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연차휴가를 쓰는 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여름 휴가를 어떻게 쓰는지 물으니, 연속 5일 정도 쉬는 현장은 전혀 없었고 겨우 3일 정도가 최대였다. 오래 일한 노동자들은 젊은 동료들이 연차를 더 자유롭게 쓰는 편이라고 세대 차이를 짚어주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층인 30대 팀장의 팀은 다른지 물었지만, 거기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높은 노동강도의 가장 큰 원인은 우체국의 인력 운용 문제, 즉 ‘겸배’였다. 우체국에는 여러 개 팀이 있고, 각 팀에 10명 전후의 팀원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무상 병가 치료중이고, 또 어떤 팀원은 연차휴가를 쓰고 있었다. 자리를 비운 동료들의 일을 남은 동료들

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 자기 일에 동료의 몫까지 쳐내야 하는 노동자들은 결국 밥 먹을 시간을 줄여 10분, 20분 안에 밥을 마시듯 먹어야 한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집배노동자들

연구팀은 수도권 두 곳의 우체국에 가서 하루 동안 집배노동자들을 따라다니며 배송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아침에 우편물을 배송 지역별로 분류해 각자 담아놓는 작업, 소포 배달에 앞서 수취인과 연락해 도착 시간을 알리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배송을 시작한 후 우편물은 우체통에 넣지만, 소포의 경우 직접 배송하거나, 부재시 수취인 집 앞에 배달한 뒤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등기와 같이, 수취인이 집에 머물 때 배달해야 하는 경우엔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수일에 걸쳐 이뤄지기도 한다.

고층 상가와 아파트에서의 배송 업무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한 층에 있는 여러 집 앞에 소포를 두고 나오는데 그 움직임은 초를 다투듯 빠르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건지 않고 뛰어 내려가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지경이다. 층마다 있는 무거운 문을 여는 일도 노동자들의 어깨와 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이었다. 속도가 빨라 연구진이 문 여닫기를 겨우 도울 정도였다. 점심 식사를 거의 마시듯 빠르게 한 후에는 동료의 구역 배송인 '겸배'를 이어 한다. '귀국'을 한 이후에는 당일 배송하지 못한 우편물을 정리하고 수취인에게 연락하는 일을 하며 마무리한다.

가능한데 불가능한 작업중지

오토바이를 타는 노동자들에게엔 언제나 사고 위험이 있고, 실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길이 울퉁불퉁하면 차와 다르게 노동자 몸에 직접 충격을 주기 때문에 부담도 크다. 폭우, 폭설, 폭염 시기에 노동자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기후 상태 때문에 배달이 지연될 때는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통지하면 될 테지만, 우체국은 노동자에게 맡길 뿐이다. 수취인과 연락을 취하면 문제 제기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 차라리 작업중지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다.

집배노동자 연구를 할 때쯤 경기도의 어느 신도시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든 생각은 '아, 이곳의 집배 노동자들에게 일이 크게 늘겠구나'였다. 신도시가 생겨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우체국에는 그런 변화에 맞춰 인력이 충원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높은 노동강도, 휴식 제한 등으로 인해 집배원 채용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집배 현장,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